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정 공 주** · 박 주 석***

1. 서론
2. 시각예술 작가 정의와 시각예술 기록물 유형분석
 - 1) 시각예술과 시각예술 작가의 정의
 - 2) 시각예술 기록물 유형분석
3. 작가의 기록물 수집전략
 - 1) 생애 조사 및 생애 시기 구분
 - 2) 발생 예상 기록물 맥락 분석
4.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 조직화 방법 설계
 - 1) 평가 및 수집실행
 - 2) 분류
 - 3) 기록정보 생성 및 기술
 - 4) 기록물 기술
5. 문화자원적 활용 사례
 - 1) 카탈로그 리조네
 - 2) 출판 및 어플리케이션 작품집 등 다양한 문화자원
6. 결론

* 본 연구는 정공주의 석사학위 논문(2013)인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를 요약·수정한 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jkj0311@naver.com)(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firstjason@mju.ac.kr)(교신저자).

▪투고일 : 2014년 3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4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25일

[국문초록]

활용 가치가 높은 아트 아카이브즈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의 생산자인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각예술 작가 개인의 기록이 정리가 된 후 하나의 작가 컬렉션이 완성이 되어 그 결과가 모이면 장르, 시기가 다양한 작가 아카이브즈는 물론 아트 아카이브즈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대상인 작가 개인의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법론을 통해, 작가의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수집전략과 작가의 기록이 문화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있도록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된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예술 작가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한 연구도 포함했다.

주제어 : 시각예술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브, 시각예술 기록, 시각예술 기록정보.

1. 서론

문화의 여러 영역 중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 현재 국내에는 해외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과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작가의 블록버스트급 대형전시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국제적인 규모의 각종 비엔날레가 개최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아트페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

으며, 미술품의 3차 시장인 옥션 또한 그 개수와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시각예술 역사가 되고 역사 기술의 바탕이 되는 관련 기록에 대한 관리는 현재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AAA¹⁾와 같은 국가의 시각예술 기록을 관리하는 아트 아카이브즈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의 대표적 시각예술 기관 중 하나인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기타 유명 사립미술관 조차 아카이브즈에 대한 관리는 시작단계에 있거나, 아카이브즈 자체가 없이 자료실 정도로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아트 아카이브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내 아트 아카이브즈 도입을 위한 연구논문을 시작으로 최근 시각예술 기록물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트 아카이브즈를 구성하는 큰 맥락인 작가의 기록을 관리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용 가치가 높은 아트 아카이브즈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의 생산자인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각예술 작가 개인의 기록이 정리가 된 후 하나의 작가 컬렉션이 완성이 되어 그 결과가 모이면 장르, 시기가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 아카이브즈는 물론 아트 아카이브즈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의 대상인 작가 개개인의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법론을 통해, 작가의 기록이 문화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있도록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된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1) Archives of American Art의 약자로서 미국 미술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관리하는 미국 시각예술아카이브즈이다.

시각예술 작가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한 연구도 포함한다.

2. 시각예술 작가의 정의와 시각예술 기록물 유형분석

1) 시각예술과 시각예술 작가의 정의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시각예술 작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시각예술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시각예술은 기존의 미술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미술이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단어의 사용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사진이 등장한 이후 기존의 미술과는 다른 방법론과 철학이 등장하고 다양한 시각에 감응하는 예술이 등장하면서 이를 포괄할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술이란 단어는 원래 일본이 서양의 근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Fine arts, 불어의 Beaux-Arts, 독일의 Schöne Kunst를 번역한 말인데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순수한 시각예술, 공간예술, 조형예술이란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다양한 응용예술의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비주얼 아트 즉 시각예술이다.²⁾

즉, 시각예술은 전통적인 미술의 영역인 회화, 조각, 판화, 소묘뿐만 아니라 사진, 영화, 디자인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팝아트등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듯 점차 다양해지는 예술의 장르로 인해 기존

2) 박주석, 「시각예술의 제도와 기록」, 『국립예술자료원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2012.

의 미술이라는 용어로는 예술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시각예술 작가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흔히 예술가라 불리는 시각예술 작가는 일반적으로 예술창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조각가, 건축가, 시인, 음악가(연주가), 무용가, 무대배우, 연출가 등을 총칭한다. 좁게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 등의 미술가 특히 직업적인 화가를 의미하며, 16세기경부터 이른바 수공직인과 구별해서 의식하게 되었다. 즉, 단순한 수공적인 숙련기술의 소지자가 아니고, 천부의 재능이 있어서 여느 사람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자가 창조자, 아티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다.³⁾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각예술 작가는 각종 시각예술 활동으로 발생한 결과물의 실제 생산자를 의미한다.

2) 시각예술 기록물 유형분석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각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봐야 한다.

국내외 예술기록관리 기관의 기록물 유형 중 우선 해외 아트 아카이브 11곳의 기록물 유형을 7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원본 기록 자료이다. 이는 필사자료, 문서류, 앨범, 스크랩북, 일기, 편지, 드로잉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 도록이 있다. 도록에는 전시도록 뿐만 아니라 경매도록, 작가전작 도록 등이 있으며, 파일자료는 작가별, 미술관별, 주제별 파일-단편, 절취 자료 등이 있다. 네 번째로 시청각 자료는 스틸사진, 동영상, 음성 자료 등이 있으며 다섯 번째 도서류는 미술잡지, 단행본-작가연구서, 전기, 논문 등이 있다. 여섯 번째로 인

3) 한국사전연구사역음, 『미술대사전 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쇄자료로는 포스터, 초대장, 지도, 만화, 삽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아트 또는 물품 자료 등이 있다.⁴⁾

또한 국내 미술자료실의 자료들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쇄자료로 미술관계의 전문도서, 간행물, 행정자료, 학위논문집, 브로슈어, 팸플릿, 포스터, 사진, 신문, 리플릿, 일기, 서신, 문서 등이 있으며 두 번째 시청각자료로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음반, 비디오물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개인자료로 작가 개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총체자료로 특정시대, 특정지역, 특정유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단순히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 단체, 전시 및 학술적인 연구와 업적 발표 등의 총체적인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이 있다.⁵⁾

이처럼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은 행정기록관리 분야의 기록물과 달리 시각예술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인 기록물로서 개인에 따른 개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록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에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다수의 작가에게 생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물을 포괄적으로 4가지 매체형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부 기록물의 형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은 시청각류, 도서류, 비도서류, 박물관류로 분류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우선 시청각류에는 DVD·VTR 테이프 등의 비디오류, 디스크·하드 디스크와 같은 자기 디스크류, 사진·사진 원판·필름·슬라이드의 필름, 사진류 등이 있으며, 도서류에는 일반 장서, 도록, 희귀본 문서, 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등이 있으며, 비도서류는 종이형태의 기록물이

4) 김철효, 「시각예술 분야 자료 관리 현황」,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2007.

5) 김이경, 『예술 기록관리의 현황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11.

지만 도서에 속하지 않는 단일한 기록건으로서 맥락 파악이 어렵거나 낱장의 기록물등을 비도서류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비도서류에는 작품이미지, 작품목록, 작품구상에 활용된 자료, 드로잉, 스케치북, 건축 도면, 전시 홍보물, 포스터, 상장, 브로셔, 팸플렛, 일기, 삽화, 작가노트, 에스키스, 유서, 편지, 메모, 입학증서, 졸업증서, 계약서, 공문서, 전시 방명록, 전시평, 작품의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 작품 소장 이력 등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류는 작품구상에 활용된 자료, 예술 장식품, 작가의 사적 생활용품부터 작품 활동 시 이용했던 미술용품 혹은 애장품, 평소 작업복 등이 이에 속한다.

〈표 1〉 시각예술관련 기록물 유형

	구분	세부유형(예)
시각예술 관련 기록물 유형	시청각류	DVD·VTR테이프 등의 비디오류, 디스크·하드 디스크와 같은 자기 디스크류, 사진 원판·필름·슬라이드의 필름과 같은 사진류 등
	도서류	일반 장서, 도록, 희귀본 문서, 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등
	비도서류	작품이미지, 작품목록, 작품구상에 활용된 자료, 드로잉, 스케치북, 건축 도면, 전시 홍보물, 포스터, 상장, 브로셔, 팸플렛, 일기, 삽화, 작가노트, 에스키스, 유서, 편지, 메모, 입학증서, 졸업증서, 계약서, 공문서, 전시 방명록, 전시평, 작품의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 작품 소장 이력 등
	박물관류	작품구상에 활용된 자료, 예술 장식품, 작가의 사적 생활용품부터 작품 활동 시 이용했던 미술용품 혹은 애장품, 평소 작업복 등

3. 작가의 기록물 수집전략

작가의 기록정보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기록정보 관리의 출발이다. 하지만 수집에 앞서 효과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전략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집전략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 기록에 속하는 시각예술 작가 기록의 경우 행정 기록과 달리 업무 혹은 기능에 따른 체계화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록정보 관리 방법론이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수집전략은 분류의 목적 중 하나를 적용하고자 한다. 분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주제나 토픽, 유형별 기록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수집된 기록물에 알맞은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유연하게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류를 한다. 두 번째 목적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기록이 아직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맥락분석과 기록유형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분류체계를 개발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수집전략을 세우게 된다.⁶⁾

이 중 두 번째 목적을 적용하여 흩어져 있는 기록을 모으거나 결락된 부분을 생산하기 위한 수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이 아직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물의 맥락분석과 기록 유형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수집전략을 마련을 해야 한다. 예술작품, 예술행사,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생산되어야 할 기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술 활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조사하고, 활동별 기록유형을 조사한 수집전략에 관한 표를 개발하는 것이다.⁷⁾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집전략은 수집 대상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기록물 맥락구성과 시각예술작가에게 일반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시각예술 작가가 생산할 수 있는

6)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조직」,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2012. 활용.

7)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p223. 활용.

기록의 일반적인 요소들을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의 수집전략을 활용 시에는 수집하고자 하는 작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생애 조사 및 생애 시기 구분

수집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수집 대상 작가의 생애 조사이다. 개인 기록정보 관리에서 수집 대상의 생애는 기록물의 맥락 생성에 도움을 주며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생애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식화된 언론, 학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생애를 파악해야 한다. 생존 작가가 아닌 경우는 작가의 유족이나 지인들을 접촉하거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생애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작가의 모든 생애를 조사하여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시각예술 작가로서 아카이빙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한 인간의 모든 생애를 연구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작가의 생애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생애를 특정한 기준에 의해 시기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애 시기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아카이빙 대상인 시각예술 작가의 생애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핵심적인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작품성향의 변화, 작업 장르의 변화 혹은 거주지의 이동, 결혼 또는 가족의 죽음 등 각종 사생활의 변화 등에 따른 삶의 큰 터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수집전략은 아카이빙하고자 하는 대상 작가의 생애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작가 개인의 특성이 담긴 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집전략의 생애 시기구분은 성장기, 교육기, 작

가활동시기, 사후시기로 구분하여 시각예술 작가로서 연구될만한 중요 활동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시각예술 작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생애 시기구분을 선정한 것으로 다수의 작가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공통된 생애시기만을 제시한 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장기, 교육기, 작가활동시기, 사후시기의 생애 시기구분은 작가의 생애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 생애에 따라 응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선 성장기는 출생 이후부터 교육을 받기 이전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은 인간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린 시절의 환경은 특정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언어를 따라 배우는 것은 물론 이 시기에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지적인 환경 혹은 문화 예술적인 환경 등 특정 환경에 놓인다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흔히 예술가 집안, 의사 집안이라고 불리는 대대로 특정 직업을 가진 집안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실제로 국내 화단에는 2대에 걸친 작가들의 활약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는 설치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도호와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 서세옥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화가집안을 형성하여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치 허련의 집안이 있다. 소치 허련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서 진도 일대에서 19세기 활동했던 작가로서 정통적인 남종화 산수의 대가로 근대 한국의 남화권을 형성시킨 작가이다. 이러한 소치의 화풍은 그의 아들 미산 허형으로 이어지고 다시 손자인 남농 허건으로 이어져 운림산방을 유지하며 지금까지도 그 화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와 지역의 구분 없이 예술가 집안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인간은 자라온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 조사를 위한 시기구분에서 성장기에 대

한 조사는 시각예술 작가로서 작가가 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끼친 환경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작가의 기록물 수집에 용이하다.

다음으로는 교육기이다. 교육기는 공교육, 사교육 등 시각예술과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을 받은 시기를 의미한다. 시각예술 분야는 교육제도를 통해 작가의 작품이 생산 된다. 시각예술 분야는 공연예술 분야와 달리 '신동'이 없다. 시각예술은 개인의 사고를 관객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각예술은 교육을 통한 정신적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작가가 받은 교육환경이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를 강조한 이유는 작가 개인의 기록물을 연구하기 위해 작가와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연구자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이다. 시각예술 작품의 생산은 개인의 취향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 취향과 세계관은 작가의 성장과 교육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⁸⁾ 그러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가를 연구할 때 출신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기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 교육기의 교육제도는 미술학교에서 교육받은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술교육이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 혹은 개인적인 상황으로 미술학교를 다니지 못했더라도 스승에게 미술 교육을 받았거나 미술학교 외 기타 기관을 다니며 교육을 받은 시기도 교육기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작가 활동시기다. 이 시기는 시각예술 작가로서 작품을 발표하고 화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다. 이 시기에는 작품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 기록정보들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이므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시기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작가 활동 시기에 속하더라도 화풍과 장르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작가

8) 박주석, 「시각예술의 제도와 기록」, 『국립예술자료원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2012.

들이 시대에 따라 화풍과 장르를 변화시킨다.

활동 초기시기에는 정통 회화를 유지하다 활동 말년시기에는 추상회화의 변화를 보이는 작가도 있으며, 아예 활동 장르를 회화에서 조각 등 여러 장르로 바꾸면서 활동하는 작가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가에 따라 작가 활동시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을 통해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의 미술화단의 분위기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카이빙하고자 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에 대한 정보도 작가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록정보이므로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사후시기이다. 작가의 죽음 후에도 작가에 대한 연구와 작가의 예술적 업적에 대한 유작전과 회고전등 작품의 전시회는 꾸준히 이루어지며 작가와 관련된 서적의 출판, 작가관련 연구 논문집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생산된다. 그러므로 생애 중 사후시기의 기록물의 연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장기, 교육기, 작가활동시기, 사후시기의 생애 구분은 중첩되는 시기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 시기구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예술 작가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써 생애 시기구분을 제시한 것이므로 아카이빙하고자 하는 작가 개인의 생애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

2) 발생 예상 기록물 맥락 분석

생애 조사가 이루어진 후 각 생애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예상하여 파악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생애 시기구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예술 작가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장기, 교육기, 작가활동시기, 사후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서 발생 가능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예상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제시한 생애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을 파악해야 한다.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물은 작품활동 기록물, 사적활동 기록물, 공적활동 기록물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작품활동, 사적활동, 공적활동의 세 가지 성격으로 아카이빙하려는 작가의 활동을 분석하고 활동에 따른 발생 가능한 기록물을 파악해야 한다.

세 가지 활동 분류 중 작품활동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기록물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각예술 작가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각 생애 시기별로 작품활동을 파악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은 예상하여 수집전략에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작품활동 관련 기록물 파악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실제 작품을 기록물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시각예술 아카이브즈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철효는 미술기록에는 미술작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기록과 정보가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작품'은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김달진과 이호신은 미술작품은 구체적인 형상을 띤 실물로서의 '작품'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술기록은 바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작품 자체는 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작품의 이미지(스캔본, 사본등), 작품의 목록, 작품과 관련된 기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 및 기록정보만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겠다. 아카이브즈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미술관이나

9) 김철효, 「시각예술 분야 자료 관리 현황」,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2007, p23. 김달진,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 2008, p13. 이호신,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설립 및 운영방안」,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2007, p51. 정혜린, 「미술작품의 기록가치 구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3 재인용.

박물관은 실제 작품이나 박물을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작품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아카이브즈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고 관련 있는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작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작품과 관련된 기록물과 작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정보만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작품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은 작가가 미술계에 끼친 영향과 미술사에서 작가 개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작품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생성할 때 유용하게 쓰이므로 작품 생산을 위한 구상단계에서부터 작품제작, 작품 생산 후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련 예상 기록물들을 되도록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작가의 작품활동 파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세부 유형들은 작가노트, 에스키스, 드로잉, 사진, 동영상, 스케치북, 작품구상에 활용된 자료, 스크랩북,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작품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기록물인 전시회 도록, 홍보책자, 팸플릿, 브로셔, 포스터, 학술 논문집, 학술 보고서, 회고전 및 단체전등의 관련 기록물, 자서전, 회고록 잡지·신문기사 등의 언론 기록물, 전시 과정을 담은 사진, 영상물, 전시방명록, 전시평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열기 위한 각종 계약서 등 전시 관련 문서와 전시를 통해 판매된 작품의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 작품 소장 이력등도 작품 관련 기록물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적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기록물이다. 사적활동 관련 기록물은 작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기록물이다. 사적활동 기록물은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생애 파악을 위한 기록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작가의 활동 시기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파악할 근거가 된다. 작가의 사적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기록물의 세부 유형들은 서신, 사진, 메모, 일기, 사적관련 공문서, 증서, 입학통지서, 성적

표, 졸업장, 각종 수집품을 비롯하여 작가의 생활필수품인 평소 즐겨 입던 옷, 작업복, 신발등도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공적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기록물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작가로서 활동하더라도 작품을 생산하고 작품과 관련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공적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 관장 혹은 교수, 평론가 등 여러 공적인 활동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공직생활과 같은 공무원직을 맡아 시각예술 분야의 정책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작가로서의 작품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작가의 공적활동들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록물을 예상해야 한다. 공적활동 파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세부 유형들로는 해당 공적활동과 관련된 업무 문서, 행정 자료, 혹은 교육 자료, 사진, 메모, 계약서, 이력서, 신분증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적활동 기록물은 수집 대상의 활동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 할 수 있거나 작가 외의 공적활동이 없을 시에는 기록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적활동 기록물은 작가 개인의 생애 조사를 바탕으로 공적활동을 파악하고 발생 기록물을 예상해야한다.

더불어 기록물 수집에 앞서 기록물의 생산자 파악 역시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인의 생애 조사를 통해 발생 기록물을 예상했지만 개인 기록이라고 해서 기록물의 생산자가 작가 본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특히 작품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시각예술 작가의 경우 다양한 기록 생산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록물의 생산자 파악 역시 매우 중요하다. 수집 대상 작가의 기록물을 생산한 생산자에는 어떠한 생산자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기록물을 생산 할 가능성은 작가 본인에게 있다. 대표적으로 앤디 워홀과 같은 유명 작가의 경우 작가 스스로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기록물을 남길 정도로 자신의 기록물에 애착을 가진 경우들이 있다. 다음으로는 작가와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 작가와 관련된 기록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작가가 사망한 경우 그 이후에 유족이 작가의 미술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세우거나 미술관을 만들기 위함으로 흩어져 있던 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작품 이미지를 복본으로 생산하거나 관련 기록물을 새롭게 생산하여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언론·출판·학계 등의 분야도 시각예술 기록 생산자에 속한다. 언론의 경우 매체에 소속된 기자가 작가와 관련한 기사 등 각종 언론 보도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판계·학계 등의 분야에서도 작가와 관련된 각종 출판물, 연구물을 생산하므로 이러한 분야의 기록물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작가가 활동한 기관·단체도 기록 생산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적 기록물의 경우 행정 기관이 발행처나 발행자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기관 및 단체도 기록 생산자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예상 발생 기록물의 생산자를 수집전략 단계에서 명확히 판단해놓으면 기록물의 잠재 소장처 분석에 활용 할 수 있으며, 기록물이 수집된 후 각종 기록정보를 재조직할 시에 활용할 수 있다.

4.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 조직화 방법 설계

1) 평가 및 수집실행

작가의 생애 조사를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기록물 중 그 중요도는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기록물 수집 실행의 우선순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생애시기별로 활동을 파악하고, 생애 조사를 통해 살펴본 작가의 이력을 따라 작가의 예상 발생 기록물 중 중요도를 부여하고, 수집 실행할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집 우선순위를 선정해야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록물 수집 실행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수집을 실행해야 한다.

수집 프로세스는 조사·연구단계와 수집계획 단계, 수집실행 단계, 수집 후 관리 및 평가의 4단계로 정리하였다. 먼저 조사·연구단계는 수집 대상과 범위가 정해진 다음 수집 대상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예상 기록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조사·연구단계는 앞서 수집전략 단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수집전략 단계에서 생애 조사를 통한 발생 예상 기록물 맥락분석을 통해 수집 대상의 발생 기록물을 예상했다. 이에 따른 발생 예상 기록물의 잠재 소장처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예상 기록물의 잠재 소장처를 위해서 1차, 2차 잠재 소장처를 구분하여 예상 발생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물은 개인기록의 성격을 많이 나타낸다. 그러므로 1차 잠재 소장처를 작가 본인이나 작가의 사망 시에는 유족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예상 기록물의 수집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2차 잠재 소장처는 경우 작가와 교류했던 지인 및 큐레이터, 전시가 열린 미술관 혹은 갤러리, 작가가 몸 담았던 기관등을 접촉하여 각종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결과물이나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기록물의 소장자,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는 미술애호가등을 잠재 소장처로 상정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집계획 단계에서는 이처럼 잠재적 소장처를 분석하여 리드개발¹⁰⁾ 뒤 리드를 접촉한 진행과정 즉, 사안을 기록하는 케이스 파일

10)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집 실행 단계에서는 기록물 소장자인 잠재적 기증자에게 수집방법별 조건과 절차를 설명하고 기록물 소장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 수집 방법에는 기증(사본기증)·위탁·구입·구술채록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된 기록물은 기록 소장자와 기록 수집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입수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련 정보 등을 소장 기록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또한 수집 실행 과정에서 기록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재 소장처 접촉을 통해 실제로 기록물을 접촉했지만 기록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기록물로서 수집을 실행할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동일한 기록물이 발생하여 더 이상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집전략을 바탕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예상 소장처를 접촉했지만 결과는 수집하고자 했던 예상 기록물과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접촉 기록물의 상태를 고려한 수집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도 수집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분류

앞서 발생 예상 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해 분류의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뜻하는 분류는 서비스를 위한 분류이다. 수집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그에 알맞은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기록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소장처 혹은 소장자와의 접촉과 수집현황에 대해 정리한 파일이다. 이러한 리드 파일에는 잠재적 기증자·기록물 현소장자·접촉 대상자들의 이름·주소·전화번호·리드의 정보원·기록 생산자의 주요 기능 혹은 활동·기증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이 이러한 기능 혹은 활동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발생 예상 기록물 분류는 기록물 수집을 위한 수집전략의 일환으로 존재 가능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분류로서 보다 세부적이고 복잡하게 분류되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분류는 검색을 위한 분류이므로 수집된 기록물 파악의 편리를 위해 기록물 수집을 위한 세부적인 분류보다는 간소화하고자 한다.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계층 구조를 적용하여 작가의 기록물 간에 맥락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록물의 계층은 Record Group, Series, File, Item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마다 특정 작가의 전체 기록물의 규모에 따라 계층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Record Group 레벨은 작가의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고 개인 기록정보를 관리함으로 작가의 이름 등을 부여하여 관리 대상을 규정하고자 한다. Series 레벨은 1차로 시각예술 작가의 활동별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앞서 수집을 위한 수집전략 단계에서 살펴본 시각예술 작가 개인의 생애 조사를 통한 작가의 기록물들은 각 생애시기 별로 작품활동 관련 기록, 사적 기록, 공적 기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수집된 기록물을 작품활동, 사적활동, 공적활동으로 1차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File레벨은 각 활동에서 발생한 기록물들을 2차로 공통되는 기록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건은 Item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분류는 앞서 수집전략 단계에서 발생 예상 기록물을 바탕으로 다수의 시각예술 작가들에게 발생 가능한 기록물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므로 2차 분류의 요소들은 기록관리 작가 개인의 수집된 기록물의 기능에 따라 응용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한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분류의 내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2〉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분류표(예)

Record Group	1차 분류	2차 분류	Item
	Series	File	
컬렉션 명 (예: 작가명)	작품활동	작품관련 기록물	기록건
		전시관련 기록물	
		수상관련 기록물	
		출판관련 기록물	
		언론보도 관련 기록물	
		연구관련 기록물	
	사적활동	교육관련 기록물	
		가족관련 기록물	
		지인관련 기록물	
	공적활동	행정관련 기록물	
		연구관련 기록물	
		협회 및 단체 관련 기록물	

1차 분류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작품활동, 사적활동, 공적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Series 레벨에서 작품활동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2차로 다시 분류되며 File 레벨의 기록물로서 작품관련 기록물, 전시관련 기록물, 수상관련 기록물, 출판관련 기록물, 언론보도 관련 기록물, 연구관련 기록물로 분류하였다. 작품관련 기록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물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품 원본은 제외한 모든 작품관련 기록물과 작품의 기록정보와 관련된 기록물을 뜻한다.

전시 관련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가가 참여한 단체전 혹은 작가의 개인전 등 전시회와 전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기록을 말한다. 수상 관련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가의 수상이력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출판 관련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품활동과 관련하여 출판물과 출판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이다. 언론보도 관련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품활동과 관련한 인터뷰, 작품비평 보도, 전시홍보 등 언론을 통해 발생한 기록이다. 다음으로 연구 관련으로 분류한 기록물

은 작가의 작품과 관련한 연구활동 기록물들로 연구논문, 학술지, 학회 발표문등의 기록이다.

다음으로 Series 레벨의 사적활동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가가 작품 활동과 작가로서 작품활동과 관련 없으나 공적인 활동을 제외한 한 사적 인간으로서 활동한 결과로 발생한 기록을 의미한다. 사적활동은 다시 File 레벨로 분류되어 교육관련 기록물, 가족 관련 기록물, 지인 관련 기록물로 2차 분류하였다. 교육 관련은 작가가 교육기관(공교육과 사교육 등)에서 학생으로서 살아간 기록이다. 가족 관련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가족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록을 뜻한다. 가족과 주고받은 서신, 가족들의 출생신고서 등 가족과 관련되어 수집된 기록물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지인 관련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사적으로 작가와 관련된 가족외의 인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록이다.

또한 Series 레벨에서 공적활동으로 분류한 기록물은 작가가 사회적으로 활동했으나 작품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활동으로 발생한 기록이다. 이러한 공적활동은 다시 2차 분류되어 File 레벨로 행정 관련 기록물, 연구관련 기록물, 협회 및 단체관련 기록물로 분류하였다. 행정관련 기록물은 작가가 한 개인으로서 사회에서 공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정기록물로서 작가의 주민등록증, 출생신고서등 각종 행정 기록물을 의미한다.

연구관련 기록물은 작품활동의 연구기록물과 다르다. 공적활동으로 분류된 연구기록물은 작가의 작품활동과 관련 없는 연구 활동으로 발생한 기록물에 대한 분류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나 공직활동 등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록물을 활동기관기록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및 단체관련 기록물은 작가가 활동했던 협회 및 단체와 관련된 기록물으로써 작가라는 분야 외에 활동하며 소속된 기관에서 발생한 기록이다.

3) 기록정보 생성 및 기술

시각예술 기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고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행정 기록의 증거적 가치보다는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시각예술 기록은 일반적인 행정 기록보다 다양한 유형을 가지며 그 분야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예술 작가의 특징에 알맞은 기술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순히 작가가 남긴 기록물만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닌 기록물이 갖고 있는 정보와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기록정보를 기술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물 기술에 앞서 기록정보를 생성하여 기술하는 일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록정보는 기록물이 포함하고 있거나 기록물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즉, 기록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정보를 만들어 기술로서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정보 기술은 작가의 기록물을 정리하다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혹은 작가의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기술로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앞서 살펴본 기록물 수집전략을 위한 작가의 생애 조사, 예상기록물 맥락 분석 등을 통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작가의 기록물과 관련된 기록정보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기술하여 기록정보 생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성된 각종 기록정보는 기록물을 기술할 때 해당 기록물의 전거 정보로서 부여된 참조코드로 함께 기술함으로써 기록물과 관련된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행 작업을 통해 모두 파악하지 못한 기록정보는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정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기록정보를 우선적으로 생성한 뒤 기록물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록정보 역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기록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기록정보로는 기록물과 관련된 인물 기록정보, 단체·가문 기록정보를 비롯하여 작품 이미지와 관련된 작품 기록정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정보는 하나의 예시로서 아카이빙하는 작가의 기록물을 파악하고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록정보를 생성하여 기록물과 함께 전거로서 기술해야 한다.

우선 인물, 단체·가문 기록정보는 ISAAR(CPF)¹¹⁾를 참고하여 기술 요소를 선정하고 기술 하고자 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기술요소에 대한 제시를 위해서 세부적인 용어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여 기술하고자 하며, 인물 기록정보와 단체·가문 기록정보를 나눠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인물 기록정보에 대한 기술 요소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3〉 인물 기록정보 기술 요소(안)

기술영역	기술 요소
인물 기록정보	참조코드
	표제
	등재성명
	소속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이메일/연락처
	주요 이력

인물 기록정보 기술을 위한 기술 요소는 기록물과 관련된 인물정보

11) ISAAR(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는 기록물 전거레코드의 구성 및 요소기술을 위한 국제 기록물 표준 전거규칙이다.

와 인물의 각종 이력사항을 기술해줌으로서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인물 정보의 기술요소는 참조코드, 표제, 등제성명, 소속,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이메일/연락처, 주요이력 등이다.

참조코드는 기록정보와 기록물을 연계시키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등록코드이다. 표제는 관리자가 부여한 기록정보 표제를 의미하며 등제성명은 인물의 대표적인 활동이름을 뜻한다. 생년월일은 인물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국적 및 거주지는 인물이 활동했던 장소를 뜻한다. 주요 이력은 인물의 주요경력과 출신학교, 수상목록 등 인물의 주요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요소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력정보를 기술한다. 인물 기록정보에 기술되는 정보의 주체는 작가, 작가의 지인, 작가의 가족 등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된 인물들의 정보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체·가문 기록정보의 기술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단체·가문 기록정보 기술 요소(안)

기술영역	기술 요소
단체·가문 기록정보	참조코드
	표제
	등제명
	존속기간
	활동장소
	이메일/연락처
	주요 기능·업무·활동
	연혁
	주요이력

단체·가문 기록정보의 기술요소는 참조코드, 표제, 등제명, 존속기간, 활동장소, 이메일/연락처, 연혁·주요이력, 주요 기능·업무·활동

이다.¹²⁾

존속기간은 단체·가문이 생성되고 활동했던 기간을 의미하며 활동 장소는 단체·가문이 있었던 활동지를 의미하고 주요 기능·업무·활동은 단체·가문의 기능·업무·활동의 정보를 기술하여 단체·가문의 성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한다. 연혁은 단체·가문의 기본적인 연혁과 주요이력은 단체·가문의 활동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이력을 의미한다. 단체·가문 기록정보에 기술되는 정보의 주체는 작가의 소속되거나 전시를 했던 미술기관 및 단체·가문, 작가와 관련 있는 학문·행정·언론기관 및 단체등 기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된 인물들의 정보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작품 기록정보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 기록관리에서는 무엇보다 작품의 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작품 원본은 기록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작품의 복본이미지는 결국 작품 원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시각 예술 작가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품정보를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록물의 이해를 돕고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품정보에 대한 기록정보의 생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 기록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을 위한 기술표준인 CDWA¹³⁾를 참고하여 기술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 기술요소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12) 이하 앞서 제시한 기록정보와 중복되는 기술요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13) CDWA는 Getty Art History Information Program와 College Art Association의 후원으로 예술사학자, 박물관, 큐레이터, 시각자원전문가, 예술사서, 정보관리자 등이 Art Information Task Force을 구성하여 예술작품에서 기술의 카테고리를 규정한다.

〈표 5〉 작품 기록정보 기술 요소(안)

기술영역	기술 요소
작품 기록정보	참조코드
	작품명
	소장처
	주제
	창작자
	크기
	재료/기법기술
	스타일/시기/그룹/활동
	수상이력
	전시이력

작품 기록정보는 작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으며 기술 요소로는 참조코드, 작품명, 소장처, 주제, 창작자, 크기, 재료/기법기술, 스타일/시기/그룹/활동, 수상이력, 전시이력 등이 있다.

참조코드는 기록물과의 연계를 위해 기술해주며, 작품명은 작가가 부여한 원본 작품의 원제목을 의미한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하며, 창작자는 작품을 생산자(Creation)를 의미하며, 재료/기법기술은 작품의 재료와 작가가 사용한 기법을 기술하고, 스타일/시기/그룹/활동은 작품이나 작품에 정의된 스타일, 미술사적 의미의 시기, 작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룹 혹은 활동과 작가의 수상이력을 기술한다. 전시이력은 해당 작품이 걸렸던 전시 이력을 기술한다.

이러한 기록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시로서 제시하며 아카이빙하는 작가의 기록물을 파악하고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기록물과 관련된 기록정보를 추가로 생성하여 기록물과 함께 전거로서 기술해야 한다.

4) 기록물 기술

앞서 기록물과 관련된 전거의 역할을 하는 기록정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각각의 기록 건에 대한 기술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록물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요소는 ISAD(G)2판¹⁴⁾을 참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각 예술의 작가의 기록물은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지닌다. 행정기록물을 기술 하듯이 기록물의 유형과 특징에 상관없이 공통된 기술 요소로 시각예술 작가의 모든 기록물을 기술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므로 기록물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앞서 제시한 각종 기록정보를 전거로서 이용하여 기록건과 기록정보가 연계되게 기술하며 ISAD(G)2판을 참고하여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기술에 알맞도록 기술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기술 요소(안)

기술 영역	기술 요소	세부 기술 요소
식별 영역	참조코드	기록물 식별 코드
	표제	기록물 제목
	기술계층	기록물이 위치한 계층(레벨)
	일자	기록물 생산일자
	유형	기록물 유형
	형태	기록물 매체 형태(데이터 형식)
맥락 영역	내용	기록물 주요내용
	생산이력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
	소장이력	소장자 또는 소장기관
기술통제 영역	수집이력	수집처 및 수집방법
	등록일자	기록물 등록일자
연관자료 영역	관리지명	기록물 등록자 및 관리지명
	전거 기록정보	기록정보기술 참조코드

14) 국제기록기구의회의 180개국 1,700여 기록 관리 기구가 참가하는 비정부 국제 기구로서 인류 기록 유산의 보호와 기록 관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록기구(ICA)에서 제정한 기록물 분류·기술 국제표준으로 1994년에 초판이, 2000년에 제2판이 발표되었다.

기록물 기술 요소는 식별영역의 참조코드, 표제, 기술계층, 일자, 유형, 형태를 기술 요소로 제시하고, 맥락영역은 기록물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내용, 생산이력, 소장이력, 수집이력을 기술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기술통제 영역은 등록일자, 관리자명 기술요소이며,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관자료 영역은 전거 기록정보를 기술 요소로 제시한다.

식별영역의 참조코드는 기록물을 기술하면서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식별코드이며, 표제는 기록물에 부여한 제목이며, 기술계층은 기록물이 기술된 계층이고, 일자는 기록물의 생산일자를 기술하고, 유형은 기록물의 물리적 유형을 기술하고, 형태는 기록물 매체 형태를 기술한다. 다음으로 맥락영역의 내용은 기록물에 대해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생산이력은 기록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에 대해 기술하며, 소장이력은 기록물의 소장자 또는 소장 기관을 기술하며, 수집이력은 수집처 및 수집방법을 기술한다. 기술통제 영역의 등록일자는 기록물의 등록일자를 기술하며, 관리자명은 기록물의 등록자 및 관리자명을 기술한다. 연관자료 영역의 전거 기록정보는 앞서 생성한 기록물과 관련된 각종 기록정보에 대한 참조코드를 전거로서 기술하여 양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자원적 활용 사례

1) 카탈로그 라조네(Catalogue Raisonne)

카탈로그 라조네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미술가의 모든 작품을 사진과 데이터로 수록하여 시대순, 주제별 등으로 분류 정리한 목록을 의미

하거나 또는 미술관 등의 컬렉션을 시대별, 유파별, 작가별로 구분하여 전 작품을 수록한 목록을 의미한다.¹⁵⁾ 분석적 작품 총서로써 한 작가의 모든 작품 기록 자료와 사진을 수록한, 말 그대로 작가와 작품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이다.

카탈로그 리조네는 작가의 모든 작품을 실은 도록 형태를 띠지만 기존의 도록과 같이 단순히 작품 도판만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작품의 재료나 기법, 제작시기 등 기본 기록정보는 물론 소장이력, 전시이력, 참고자료 리스트, 작가의 생애, 제작 당시의 개인사, 신체조건, 정신상태 등을 집대성한 기록물이다. 카탈로그 리조네는 작가가 생존 당시 그가 남긴 작품을 가능한 모두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수록된 각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그들 각각의 소장내력, 전시내력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장내력과 전시내력은 그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참고 문헌 기록정보들을 모두 파악하여 기록한다. 이로 인해 각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관련한 미술사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연구 자료로도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카탈로그 리조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증 자료로써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러한 카탈로그 리조네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록의 부재이다. 현재 국내 시각예술분야 작가의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카이브즈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렇듯 작가의 기록물이 없으니 카탈로그 리조네의 제작도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작가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술품 위작시비의 증거가 되며 미술사 연구의 자료로도 활용되는 카탈로그 리조네를 제작하여 문화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15) 한국사전연구사역음, 『미술대사전 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2) 출판 및 어플리케이션 작품집 등 다양한 문화자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작가의 기록물이 여러 가지 문화자원으로 활용된 반 고흐 편지 프로젝트(Van Gogh Letters Projec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Van Gogh Letters Project”로 불리는 반 고흐의 편지 컬렉션은 <반 고흐>가 지인들과 교환해서 남긴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편지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반 고흐 미술관>과 <호이겐스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15년 동안 연구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10월에 종료되었다. 그 결과 반 고흐의 편지는 지인과의 소식을 교환하는 통신수단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생각과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작품이 그려진 장소, 작품을 생산 할 당시 작가의 심경, 건강상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작품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작가의 편지와 그 외 기록물들은 네덜란드 종이 유산 보존 국가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모두 디지털화되었다. 그 결과 특별 전시와 연구 결과 전체를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3개 국어(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6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반 고흐가 남긴 편지의 다양함을 알리기 위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작가의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작가의 기록물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술관을 찾는 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는 등 문화자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시각 예술 작가의 기록물은 그 자체로 문화자원으로 승화되어 활용될 수 있다.

6. 결론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다.’라는 말은 기록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말은 시각예술 분야의 기록관리 영역에도 해당된다. 짧은 미술사의 역사 속에서 각종 위작사건과 작품의 진위여부를 놓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록의 부재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보급된 카탈로그 리조네가 국내에는 한 작가의 것만이 출판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시각예술 기록관리의 수준을 시사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 출판된 한권의 카탈로그 리조네마저도 중요한 기술요소 중 하나인 작품의 소장이력 정보는 빠져 있다. 소장이력 정보를 기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들의 사생활보호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소장이력에 대한 기록의 부재로 인해 정보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예술분야의 기록관리는 이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각 기관과 개인의 아카이브즈에 대한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 관리는 시각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기관 아카이브즈와는 달리 개인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작가의 예술적 특징을 반영함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특징을 반영하여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를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트 아카이브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및 기록의 생산자인 작가의 기록물 수집전략과 기록정보관리 연구는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작가의 생애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수집을 위한 아카이빙 작가만의 맥락정보를 바탕으로 작가의 기록물을 수집, 분류, 기술하여 작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 다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해 연구했다. 작가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연구함으로써 작가가 생

산한 작품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작가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작품 활동 이외의 활동이력 정보까지 조사하여 작가로서 뿐만 아닌 사회 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작단계에 있는 시각예술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고, 관련 기관의 아카이브즈나 작가의 개인 아카이브즈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활용되며, 작가의 기록물을 보관하고만 있던 작가의 유족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아카이브즈에 생소한 시각예술 분야의 여러 작가들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Acquisition Strategy of Records for Artists and Their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Jung, Kong Ju · Park, Ju Seok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surfacing of such issues is because the record does not exist and even if the records remained, it is because they are not being properly managed. In Korea, National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visual arts, currently there are no archives that manage only the records for the visual arts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and the reality is that the National Museum of Archives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as well.

This study has conducted a research on the records collection strategy and the manage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of an author who is the creator of the visual arts as a starting point of the visual arts. For this purpose, the definition of visual arts and the concept of an author covered in this study will be examined and the types of documentary that may occur in the field of visual art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history of an author is its personal record thus a personal history and private archive have been examin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cases on the personal record and the manage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authors were analyz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Key words : Arts Archives, The Records Collection Strategy, The Management of Records Informations, The Records and Archives in Visual Arts.

